

다문화가정 안정기 접어드나… 혼인·이혼 나란히 감소

광주 1년 전보다 28건·59건 ↓…전남도 혼인 줄어
전국 출생아 1만3416명 10.4% ↑…비중 5.6%로 확대

지난해 광주지역 다문화 혼인과 출생이 전년 대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혼 건수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급증했던 다문화가정이 이제 안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다

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다문화 혼인은 447건으로 1년 전(475건)보다 28건(-5.9%) 감소했다. 전남은 766건으로 전년(782건)과 견줘 16건(-5.7%) 줄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혼인이 증가한 것과 달리, 양 지역과 강원만 감소한 모습을 보

였다.

이혼에서는 양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광주는 147건으로 전년(206건)보다 59건(-28.6%)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306건에서 332건으로 26건(8.5%) 늘었다.

광주에서 혼인과 이혼이 동시에 줄었다는 점은 단순한 경기침체 영향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급격한 변화를 지나 안정적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출생아 수도 엇갈렸다. 광주 다문화 출

생아는 299명으로 전년(323명)보다 24명(-7.4%) 줄었고, 전남은 559명으로 67명(492명, 13.6%) 늘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전년 대비 10.4% (1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2만2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

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702명) 이후 가장 많았다.

다문화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로, 1년 전보다 0.1세 하락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1450건으로, 1년 전보다 5.0% (1019건) 증가했다.

2019년(2만14721건) 이후 최대치다.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34.6%), 2021년(-13.9%) 급감했다가 2022년, 2023년 각각 25.1%, 17.2% 큰 폭으로 뛰면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한전·코레일·광주환경공단
주니어보드 융합팀 현장활동

한전 광주전남본부부는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환경공단과 함께 주니어보드 융합팀(MODU)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현장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활동은 에너지 공공기관 간의 협력 모델과 신기술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젊은 세대 직원들의 시각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주니어보드 융합팀과 고장시험 전력센터를 찾아 전자기 이해 증진관, 65kV 실증시험장 견학하고, 오는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BIXPO(빅스포) 2025’를 참관했다.

특히 빅스포에서는 미션 수행을 통해 전력산업과 에너지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병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세 기관의 주니어보드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각 기관이 나아갈 혁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체감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과 현장 중심의 학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전KPS, 국제품질분임조대회 3년 연속 금상 수상

원자력 발전 지입자재
품질검증 프로세스 개선 등

한전KPS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2025년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2025 TAIPEI)’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대회는 각국의 분임조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 기업현장에서 수행한 품질개선 활동의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세계 품질인의 축제다.

올해는 한전KPS를 비롯한 12개 기업에서 29개 분임조가 한국 대표로 참가해 품질경영 우수 성과를 발표했다.

한전KPS는 한빛1사업처 분임조의 ‘원자력 발전 지입자재 품질검증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검증시간을 34.7% 단축한 성과 발표와 평택사업소 분임조의 ‘원수공급 유량 제어밸브 개선’을 통해 정비시간을 38% 단축한 사례를 발표,



한전KPS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2025년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2025 TAIPEI)’에서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PDCA(계획-실행-점검-환류) 관점의 개선활동 전개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두 팀 모두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고품질·무

결정 책임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객 가치를 창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앞서 지난 8월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도 29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전, 우수 기자재 공급사 8곳 선정

전력 기자재 조달 정책 공유

한국전력은 6일 ‘2025 우수 기자재 공급사’를 선정하고,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전력 기자재 조달 정책 공유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전력 기자재 조달과 제조사 대

표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우수 기자재 공급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이뤄졌다.

우수 기자재 공급사는 지난해 동안의 기자재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품질 수준, 적기 납품, ESG 경영 등을 종합평가해 총 8

개사가 선정됐다.

한전은 올해부터 우수 기자재 공급사에 대한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인정시험 비용지원 등의 우대정책에 더해 재정적 지원(계약보증금 면제·환경인증 비용 지원)과 제도적 혜택(공동연구개발 과제 참여 우대 등)을 포함한 12개 인센티브를 패키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전력 기자재 공급망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력 기자재 조달 방향성과 주요 제도 개선사항도 공유했다.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우수 기자재 공급사의 기술력과 품질, 신뢰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전KDN, 빅스포 참여
ICT 대전환 솔루션 출품

한전KDN이 오는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BIXPO(빅스포)’에 참가해 에너지 ICT 핵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빅스포는 한전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전력기술 박람회로, 에너지 산업의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다.

한전KDN은 이번 박람회에서 △K-H2 ECP(EMS Cloud Platform·수소도시 플랫폼) △E:모음(KDN-VPP 플랫폼)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SG(Smart Grid) 기기 보안인증시스템 등 탄소중립 실현과 전력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 5종을 출품했다.

한전KDN은 빅스포 참가를 통해 기술 홍보를 넘어 국민과 산업계에 에너지 ICT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형 전시’를 구현하고자 전시관 내 기술 세미나와 SNS 참여 이벤트, 현장 설문조사를 통한 관람객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향후 제품 개선과 서비스 기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빅스포는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공개함으로써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빚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렉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책 시험 조건)

최대 58°C
고온 난방,
폭한도 거뜰하게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완성

에너지솔루션

온라인 견적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몰 www.carri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